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계절, 한 해의 마지막 문장을 쓰는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끝내기에는 아직 못다 한 말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숨이 가쁜 지금, 우리에게 이 겨울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채워 넣은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기획·제작 | 키온 제작부 강서해(음악과 45기)
촬영 | 키온 제작부 손하울(미술과 46기)

출연 | 한지오, 유시은, 이수안, 이정민

The Winter

Q. 먼저, 미술계열 전체 수석으로 대학교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입으로 분주하고도 고단한 한 해를 보내셨는데요. 2025년의 끝에 심표를 찍는 소감이 어떤가요?

A. 2025년에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스스로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저 자신이었어요. 입시를 치르면서 외부의 어려움보다는 '적당히'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제 성향이 가장 큰 부담을 줬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 또한 저였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쓰기 시작한 일기장에 속마음을 가득 적다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구요. 저 자신을 이해하게 되니 쉽게 미워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 격려하며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25년은 늘 완벽한 결과만을 좇던 저에게,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준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The Winter



Q. 이 쉼표의 뒤에 오는 2026년에는 어떤 문장을 이어 쓰고 싶나요?

A. 지난 해의 저는 눈앞의 일들에 집중하기 위해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해왔는데요. 올해는 그 안정된 바탕 위에 서서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에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려고 해요.

무작정 일들을 벌이기보다는,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판단력과 책임감을 키우고 싶어요. 2026년의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무수한 경험을 쌓아갈 겁니다!

The Winter

- Q. 동아무용콩쿠르와 무용제라는 큰 무대를 거치며 무용수로서 특별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2025년의 끝에 심표를 찍는 소감이 어떤가요?
- A. 저는 키가 작은 편이라 무대에서 홀로 춤을 출 때 ‘어떻게 해야 길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오랜 연구와 수많은 연습의 시간이 힘들기도 했지만, 제가 무대 위에서 빛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의지가 있었죠. (웃음)

무용제를 올리면서는 군무의 위대함을 또 한 번 느꼈는데요.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모여 하나의 감동적인 군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금 춤의 매력을 느끼며 무용수로서의 열정에 불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The Winter

Q. 이 심포의 뒤에 오는 2026년에는 어떤 문장을 이어 쓰고 싶나요?

A.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치를 2026년에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며 춤추는 제가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춤춰온 시간을 떠올리며 입시장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춤추기를 바라고 있어요.

많은 고통과 실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후회 없는 2026년이 되면 좋겠어요.



Department of Dance

The Winter



연극영화과 45기 | 이수안

- Q. 지난해 정기공연 ‘맘마미아!’의 주연 소피 역을 맡아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는데요. 2025년의 끝에 심표를 찍는 소감이 어떨까요?
- A. 정기공연을 마친 직후에는 해방감이 가장 크게 들었어요. (웃음) 감사하게도 비중 있는 배역을 맡았는데 극을 이끌어 가는 자리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덕분에 배우로서의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죠.
- 또 무대란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음을 실감했어요. 상대 배우에게 맞추는 것이 저의 연기까지 살리는 일이라는 것, 그렇기에 무대 위에서는 서로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기공연을 마친 지금, 큰 성취감과 함께 다음 무대에는 더욱 단단한 모습으로 서고 싶다는 마음이 남았어요.
-

The Winter

Q. 이 쉼표의 뒤에 오는 2026년에는 어떤 문장을 이어 쓰고 싶나요?

A. 쉼표란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선택하는 순간이잖아요. 우리 학교에 입학해 어느덧 3학년이 된 2026년에는 더 풍부하고 다양한 문장을 써내려가는 예술가로 성장하고 싶어요.

입시생으로서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 저만의 방향과 속도를 선택하고 싶어요. 제가 꿈꾸는 2026년은 당연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문장들 사이에 쉼표를 하나 놓아보는 시간입니다.



The Winter

Q. 음악과 전체 수석 입학으로 시작한 2025년,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의 끝에 심표를 찍는 소감이 어떨까요?

A. 입학할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입학 전의 저는 저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여러 상황에 부딪히며 실패를 겪다 보니 '나는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구나'를 깨닫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롤모델을 찾으면서 고민을 극복하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어요. 마커스 길모어, 오타니 쇼헤이 같은 사람들을 동경하고 본받으려 하다 보니 제가 가고자 하는 음악의 길에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것이 또 다른 삶의 동기가 되기도 했으니, 2025년은 뜻깊은 한 해였네요.

The Winter



Q. 이 심표의 뒤에 오는 2026년에는 어떤 문장을 이어 쓰고 싶나요?

A. 2026년의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 하며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내고 싶어요. 나를 돌아보며 잘 다듬고, 친구들과도 좋은 추억을 쌓으면서, 어제보다 성장하는 날들을 보낸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날들이 모이다 보면 다양한 목표가 생기고, 또 그것들을 이루고, 더욱 큰 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앞으로 이어갈 수많은 문장 중에 2026년은 '가장 성실했던 해'로 기록되었으면 해요.



계원예술고등학교
KAYWON HIGH SCHOOL OF ARTS